



HAL
open science

“ P’ûrangsû immun- sahoe-gwahak chônmon tosôgwan sangho hyômnyôk ch’egye (Système de collaboration des centres documentaires spécialisés sur les sciences humaines et sociales en France) ”

Eunjoo Carre, Na

► To cite this version:

Eunjoo Carre, Na. “ P’ûrangsû immun- sahoe-gwahak chônmon tosôgwan sangho hyômnyôk ch’egye (Système de collaboration des centres documentaires spécialisés sur les sciences humaines et sociales en France) ”. 2009. <sic_00494940>

HAL Id: sic_00494940

https://archivesic.ccsd.cnrs.fr/sic_00494940

Submitted on 24 Jun 2010

HAL is a multi-disciplinary open access archive for the deposit and dissemination of scientific research documents, whether they are published or not. The documents may come from teaching and research institutions in France or abroad, or from public or private research centers.

L’archive ouverte pluridisciplinaire HAL, est destinée au dépôt et à la diffusion de documents scientifiques de niveau recherche, publiés ou non, émanant des établissements d’enseignement et de recherche français ou étrangers, des laboratoires publics ou privés.

프랑스 인문사회과학 전문도서관 상호 협력 사례: 사회과학 고등연구원을 중심으로*



나 은주

프랑스 사회과학 고등연구원
한국연구센터 정보담당관
carrenej@gmail.com

1. 들어가는 말

프랑스 사회과학 고등연구원(EHESS, Ecole des Hautes Etudes en Sciences Sociales)의 기원은 1945년 페르디낭 브로델과 루시앙 페브르에 의해 창단된 프랑스 고등 실천학술원의 4번째 섹션인 사회과학부이며 1975년 자치적 기관이 되었다. 현재 47개 연구센터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37개 연구센터가 프랑스 국립과학원(EPHE, Ecole Pratique des Hautes Etudes)의 인증을 받은 연합연구실(UMR: Unité Mixte de Recherche)을 가지고 있다. 전체 인원을 보면 약 300여명의 교수진과 500여명의 연구원, 450여명의 전문원과 기술원, 3,000여명의 학생이 있고 연간 약 4천 만유로의 예산으로 운영된다. 전 세계 여러 나라의 대학과 학술기관들과 연계를 맺고 있어 연간 150여명의 외국 교수들이 초빙되고 학생 절반이상이 외국 유학생들이다. 연구와 연구원 양성을 사명으로 하고 있어 교수과정으로는 박사과정 밖에 없었으나 3년 전부터 석사과정을 도입하여 다른 대학, 학술기관들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2. 사회과학 고등연구원 도큐멘탈리스트와 도서관원 모임(GDBE), <http://www.ehess.fr/fr/documentation/gdbe>

프랑스 사회과학 고등연구원은 수도인 파리 뿐만 아니라 리옹과 마르세이유와 툴루즈에도 연구센터와 연구팀을 두고있다. 각 연구센터들마다 진행 중인 연구주제들을 중심으로 수집된 풍부하고 특히 아주 전문적인 자료들을 소유하

* 나은주 사서의 글은 본지 7월호에 이어 8월호에도 게재될 예정이다. 8월호에는 "프랑스 초등학교 읽기교육과 시립도서관"에 대해 다룬다.

고 있다. 이 자료들은 지금까지는 각 연구센터들이 완전히 자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연구센터에 따라 도서관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하고 연구센터 자료관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또한 공공도서관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고 연구센터 멤버 전용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과학 고등연구원에는 자체 중앙도서관이 없다.

대부분 각 연구센터에 소속된 전문원(프랑스 행정용어로 직책명은 Ingénieur)들이 자료운용의 책임을 맡고 있다. 자료담당 전문원들의 역할을 정의하는 직무명은 '도서관원'(bibliothécaire)이 아니다. '도서관원'이라는 용어와 지위는 도서관(bibliothèque)이라는 기관에 소속되어 도서관을 경영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써 '도서관'이라고 하는 특별한 형태의 기관과 조직, 기능이 강조되는 말이다. 따라서 이 곳의 전문원들은 자신을 소개할 때 '도큐멘탈리스트'(documentaliste), 즉 자료를 다루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이 용어는 '도큐먼트'(document = 자료)라는 말이 강조된 용어다. 따라서 자료관리 전문원들의 전공도 도서관학이나 문헌학이 아니고 각 연구센터의 해당 전공이나 그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를 전공했거나, 그 연구센터에 필수적인 능력을 보유한 사람들이다. 학력은 주로 해당 전공분야의 석사를 가지고 있거나 박사학위 소유자도 많이 있다. 전문원들이 모두 문헌정보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필수적으로 다 받았음은 물론이며 직업교육으로서 매년 다양한 교육과 워크숍, 스터디그룹 등을 통해 항상 변화하는 직업 환경과 기술에 적응하고 개발과 향상을 도모하는 것도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연구주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연구주제에 적합한 자료를 조사 수집하고 추천하며 자료 구축을 할 수 있고 실제로 연구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정보담당 전문원들은 또한 논문 작성법, 참고문헌 기재 규범, 저작권 등에 대한 교육도 감당하며, 테크놀로지 발전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도구를 발굴·개발하여 소개하고 그 사용법 등을 교육한다.

사회과학 고등연구원 자료관을 종합하면 그 총규모는 400,000 종 정도이고 연간 10,000 종 정도가 증가한다. 자료관들은 제각기 특정한 역사와 기능을 가지고 연구센터의 연구활동을 중심으로 자치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같은 기관 소속이더라도 연구 활동상 특별한 근접성이 없으면 서로 특별히 연계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시작된 제도적 기술적 변화로 인해 각 연구센터에 소속된 정보담당 전문원들이 함께 모이게 되었고 '사회과학 고등연구원 도큐멘탈리스트와 도서관원 모임'(GDBE, Groupe des Documentalistes et Bibliothécaires de l'EHESS)을 만들었다.

이 모임에 속한 사회과학 고등연구원의 주요 연구센터 자료관에 대한 소개는 그 역사나 자체적인 특성 등 세부적인 정보는 피하고 자료관 이름과 기본적인 정보만 본고 마지막 부분에 리스트로 제시하겠다.

이 리스트에 소개되지 않은 자료관이 두 개 있는데, 특정 연구센터에 속하지 않은 자료관들이다. 그 중 하나는 새로운 테크놀로지개발로 변화하는 자료성격과 그 운용방식에 부응하기 위해 3년 전 새로 만들어진 '전자자료와 웹 출판 센터'(Centre d'Édition Web, de Ressources électroniques et de Communication, <http://www.ehess.fr/cerc>)로써 각종 학술전자자료를 추천, 구독, 관리하고 연구센터들의 웹사이트 제작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한다. 그러나 이 전자자료관에서 다루는 학술 전자자료는 사회과학 고등연구원의 모든 연구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유용한 서구언어로 된 총괄적 자료들에 제한되어 있고 각 연구센터의 전공 분야에 필요한 특수 전자자료들의 구입과 관리는 각 연구센터 정보담당 전문원의 몫이다. 또 다른 하나는 '아카이브 자료관'(Service des archives de l'EHESS, <http://www.ehess.fr/archives>)으로써 사회과학 고등연구원에 관한 기관의 역사적 흔적이 될 만한 행정자료들과 연구원들이 제

작한 현장 연구 결과, 조사 보고 등과 같은 학술자료 등을 모두 수집하고 관리하고 보존한다. 퐁텐느블뢰에 있는 프랑스 국가 아카이브 센터와 연계하여 국가의 문화 유산을 발굴 보존 관리하는 사명을 갖는다.

3. 협력 양상

1) 주제적, 지리적, 정책적 근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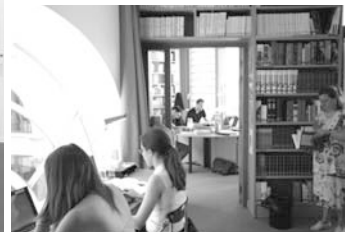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과학 고등연구원의 자료관들은 운영면에서 자치적이고 독립적이다. 그러나 이 자료관들은 주제적, 지리적, 정책적 근접성과 필요에 따라 여러 파트너들과 다양한 협력체제를 이루고 있다. 연구 센터에 속한 자료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연구활동 지원이므로 각 연구센터 마다 진행되고 있는 연구의 주제에 따라서 필요한 파트너와 자유로운 방식의 협력을 구성한다. 따라서 협력체제에 가장 기본에 되는 요소는 무엇보다 주제적 근접성이다. 또한 자료관들이 실제로 위치한 물리적 지리적인 근접성에 의해서도 협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후에 소개될 아시아의 집 도서관의 경우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한편, 한국 연구센터의 경우 파리에서 한국 장서를 가지고 있는 파리7대학이나 동양어문화대학(INALCO) 콜레주드프랑스 등과 연계를 맺고 각 기관의 전공분야와 운용적 특성을 고려해 자료구입을 분배함으로써 중복을 피하면서 최대한 폭 넓은 장서를 확보하고자 하며 연구원들이 사용하는 데에 효율성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경우는 정책적인 근접성에 따른 협력체제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주제적, 지리적, 정책적 근접성이라는 요소들은 따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의 삼면체처럼 함께 작용하므로써 협력체계들은 다원적이고 복합적 모습을 한다.

① 파리 6구, 라스파이유 54번지 도서관

프랑스 사회과학 고등연구원 본부가 있는 라스파이유 54번지 2층에는 도서관이 있다. 건물 한층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어 마치 사회과학 고등연구원의 중앙도서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회과학 고등연구원 도서관이 아니고 인문과학재단(FMSH, Fondation Maison des Sciences de l'Homme)이 1970년에 만든 도서관이다. 사회과학 고등연구원에서는 유럽 종교 인류학 센터, 레이몽 아롱 정치연구센터, 중세 서양 역사 인류학 센터, 역사인구학 연구센터가 협력하여 이 도서관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라스파이유 54번지 도서관은 2007년 현재 약 160,000 종의 단행본과 10,000 종 정기간행물, 그리고 7,000 여 박사논문을 보유하고 있고 자유 열람실의 참고자료는 3,500 여 종이다. 단행본의 50%, 정기간행물의 75% 이상이 외국어 자료인데 주로 영어, 독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등 서구언어 자료다. 주요관련 분야는 역사, 철학, 인류학, 언어학, 사회학, 심리학, 정치학, 경제학, 문학이다. 특히 북미학 자료, 노동사 등에 대한 자료들이 풍부하고 뤼시앵 파브르, 레이몽 아롱, 장루이 플랑드랭, 뤼세트 발랑시, 피에르 부르디외의 같은 세계적인 학들의 개인 장서들과 소논문들 내지 미출간 논문이나 보고서 등을 자랑하는데 이는 사회과학 고등연구원과 협력한 결실 중 하나다. 대부분의 사회과학 고등연구원의 연구센터 자료관들이 해당 연구센터 소속의 연구원들에게 원칙적으로 우선적인 사용권한을 주는 반면 인문과학재단 도서관은 모든 대학과 학술기관에 소속된 연구원들에게 열려있으며 상호대차 서비스도 한다.

인문과학재단 도서관에서는 또한 바빌론(Babylone)이라는 온라인 목록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바빌론은 2006년부터 프랑스 전국 대학 공동 온라인 목록 서비스인 슈덕(SUDOC, Système Universitaire de Documentation)에 가입하여 그 협력 체제를 한층 넓혔다. 따라서 이러한 협력체제는 인문과학 재단의 도서관이라는 창을 통해 사회과학 고등연구원의 연구센터 소속의 전문자료관들이 좀 더 폭 넓게 열람될 수 있도록 한다.



- 유럽 종교 인류학 센터(Bibliothèque du Centre d'anthropologie religieuse européenne)
- 레이몽 아롱 정치연구센터(Bibliothèque du Centre de recherches politiques Raymond Aron)
- 중세 서양 역사 인류학 센터(Bibliothèque du Groupe d'anthropologie historique de l'Occident médiéval)

② 파리 16구, 아브뉴 프레지당 월슨 22번지, 아시아의 집 도서관

파리 16구에도 사회과학 고등연구원의 연구센터 자료관들이 다른 파트너와 또 다른 협력체제를 이루고 있다. 아브뉴 프레지당 월슨 22번지에는 아시아의 집이라고 불리는 건물이 있고 2층에 아시아의 집 도서관이 있는데 이 도서관은 명분상 프랑스 극동연구원(EFEO, E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이 관리하지만 실제적인 운용을 보면 사회과학 고등연구원의 지역학 분야에 속하는 동남아시아 센터, 인도-남아시아 연구센터, 근현대 중국연구센터, 동아시아 언어학 연구센터, 한국 연구센터의 협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협력의 구체적인 예를 한 가지만 들면, 프랑스 정부가 동남아시아 식민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세운 극동연구원이 1903년 하노이에 도서관을 만든 것이 현재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한국에 관한 자료는 기증받는 것들이 외에는 거의 없다. 그러나 완전히 개방된 공공도서관인 아시아의 집 도서관에서 이용자들이 한국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는 것은 그 곳에 사회과학 고등연구원 한국 연구센터의 자료가 있기 때문이다. 자료의 구입과 관리는 완전히 한국 연구센터에서 하지만 한국 연구센터 연구원 전용인 자료들을 열람용으로 나누어 주고 있는 것이다.

목록 방식의 변화를 보면 아시아의 집 도서관 내에서 아가트(Agathe)로 작성하던 전자서지는 2001년 시작된 개혁 프로그램에 따라 비서구 언어문화 도서관(BULAC, Bibliothèque Universitaire des Langues et Civilisations)의 밀레니엄 목록으로 2005년에 유입되었다. 당시 계획은 밀레니엄에 유입된 서지를 슈덕(SUDOC)으로 올린다는 것이었으나 밀레니엄 측에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에 따라 아시아의 집에서 2005년까지 작성된 서지들은 아직까지도 비서구 언어문화 도서관(BULAC)의 웹사이트에서만 검색이 가능하다. 다행히 2006년 슈덕(SUDOC) 측에서 비라틴계 언어 문제를 해결해 한국어, 일본어, 한자 등으로 직접 서지 작성 가능해짐에 따라 새로운 서지는 슈덕(SUDOC)에서 직접 작성할 수 있게 되었고 이렇게 작성된 새로운 서지들은 불락(BULAC)의 데이터 베이스로 매일 자정에 자동복사되고 있다.

■ 인도-남아시아 연구센터 동료들 : 실비 아다모, 토마 코르페
(Bibliothèque du Centre d'études de l'Inde et de l'Asie du Sud)



2) 공동 온라인 서지

주제적, 지리적 근접성과 상관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협력 중 가장 대표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작업은 무엇보다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가져다 준 온라인 공동 서지작업이다. 이 작업은 지리적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국가적 단위 뿐 아니라 세계적인 차원의 협력체제까지 가능하게 해준다. 사회과학 고등연구원의 자료관들이 참여하고 있는 공동 온라인 서지들을 살펴보자.

① 바빌론(Babylone), <http://catalogue.bibliotheque.msh-paris.fr>

바빌론은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인문과학재단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목록 서비스로 사회과학 고등연구원에서는 4개의 자료관이 참여하고 있다. 2006년 부터 전국 대학 공동서지 시스템인 슈덕(SUDOC)에 합류하였다.

② 불락(BULAC, 비서구 언어문화 도서관), <http://catalogue.bulac.fr>

비서구 언어문화 도서관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서구 언어 자료를 전문으로 다루는 자료센터들을 모아 거대한 도서관을 만든다는 발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계획으로서 각 자료센터에서 이미 구축해 놓은 전자서지들을 유입하여 한 데 모으고 전자화되지 않은 서지들을 전자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아시아의 집 도서관에서 작성한 전자서지들을 유입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협력 자료센터들이 슈덕(SUDOC)에 새로 작성하는 서지들도 자동으로 유입받아 목록을 충원하고 있다. 사회과학 고등연구원의 자료관 중에서는 아시아의 집 도서관에 있는 5개 자료관 이외에도 아프리카 연구센터, 러시아·코카스·중앙유럽 연구센터, 일본 연구센터가 더 협력하고 있다.

③ 슈덕(SUDOC, 전국 대학 공동 서지 시스템), <http://www.sudoc.abes.fr>

이미 앞서 여러 번 언급한 바 있는 슈덕(SUDOC)은 프랑스의 대표적인 공동서지 시스템으로 1994년 창단된 고등교육 도서관협회(ABES, Agence bibliographique de l'enseignement supérieur)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 전국 대학 공동서지 시스템은 약 9백만개 이상의 자체서지와 2천5백만 이상의 공유서지를 보유하고 있고 프랑스 박사학위 논문들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전국의 대학과 학술기관 이외에도 2,400여 개의 공·사립 도서관들과 자료센터가 참가하고 있으며, 사회과학 고등연구원의 경우 바빌론 목록에 속한 4개 자료관과 불락(BULAC) 목록에 속한 8개 자료관 등 총 12개 자료관이 현재 참여하고 있다.

④ 고등사범학교 공동서지, <http://halley.ens.fr>

고등사범학교(ENS, Ecole Normale Supérieure)의 9개 도서관이 모여 공동 온라인 서지 서비스를 하는데 사회과학 고등연구원에서는 과학, 철학, 역사, 출판에 관한 아카이브 센터(Bibliothèque du Centre d'Archives de Philosophie, d'Histoire et d'Édition des Sciences)가 협력하고 있다.

⑤ 인류학 공동서지, <http://www.mae.u-paris10.fr/dbtw-wpd/bed/index.html>

인류학과 사회학 전문도서관 4개가 모인 인류학 공동서지(réseau Ethnologie)에는 사회인류학 센터(Bibliothèque du Laboratoire d'anthropologie sociale)가 협력하고 있다.

⑥ 뮤스카(Muscat), <http://bcmnts1.mnhn.fr>

프랑스 국립 자연 역사 박물관 온라인 서지 뮤스카에는 알렉상드르 코이레 과학 기술 역사 연구센터(Bibliothèque du Centre Alexandre-Koyré, Histoire des sciences et des techniques)가 협력하고 있다.

⑦ 자체 온라인 서지

이상에서 사회과학 고등연구원의 자료관들이 관련 분야 전문기관들과 함께 크고 작은 공동 온라인 서지 시스템을 만드는 데에 다양하게 협력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한편 몇몇 자료관은 자체적으로 온라인 서지시스템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슈르당 인문사회과학 도서관, 장 니코드 센터, 동아시아 언어학 연구센터, 비에이유 샤리테 사회과학 자료센터(마르세이유), 오세아니아 연구와 자료 센터(마르세이유)는 자체 온라인 서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 자료관들이다.

4. 프랑스는 회의 중

이상에서 사회과학 고등연구원 연구센터의 전문자료관들의 다양한 협력 방식들을 살펴보았다. 협력 양상들은 복합적이고 자립적이다. 프랑스 문화의 성숙한 개인주의와 합리주의적인 사고 방식이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고 고유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연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 같다. 협력 양상들은 또한 유연해서 항

상 새로운 가능성과 필요성에 열려있고 수시로 변화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항상 회의와 토론회가 끊이지 않는다. 현재 프랑스 고등교육계 전체가 대대적인 개혁정책에 당면하고 있다. 그 가운데 사회과학 고등연구원과 직결되는 개혁프로그램은 파리 북쪽에 인문사회학 전문 학술기관들은 집결시켜 콩도르세 캠퍼스를 건설하는 것인데 그 대형 캠퍼스에는 당연히 대형 자료센터 내지 도서관이 만들어 질 예정이다. 이 계획의 등장으로 8년 전부터 추진되고 있는 불락, 비서구 언어 문화 도서관 건설 계획에 사회과학 고등연구원의 참여 여부와 그 협력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었고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이 여전히 회의와 토론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5. 사회과학 고등연구원 자료관 리스트

1) 지역학 분야

- ① 동남아시아 센터(Bibliothèque du Centre Asie du Sud-Est-Fonds Archipel)
Maison de l'Asie, 22 Avenue du President Wilson, 75016 Paris, <http://case.cnrs.fr>
인도네시아에 관한 자료가 약 15,000 종 단행본과 65종의 정기간행물이 있다.
- ② 아프리카 연구 센터(Bibliothèque du Centre d'études africaines)
54 Bd Raspail, 5e étage, piece 518, 75006 Paris, <http://ceaf.ehess.fr>
남사하라, 안티브, 남아메리카에 관련된 인류학, 역사학, 지리학, 사회학 자료가 단행본 24,000 종과 587 종의 정기간행물과 논문들이 있다.
- ③ 인도-남아시아 연구센터(Bibliothèque du Centre d'études de l'Inde et de l'Asie du Sud)
Maison de l'Asie, 22 Avenue du President Wilson, 75016 Paris, <http://ceias.ehess.fr>
단행본 약 30,000종, 소논문 3,000종, 지도 270, 정기간행물 400 여종이 있다.
- ④ 러시아·코카스·중앙유럽 연구센터(Bibliothèque du Centre d'études des mondes russes, caucasien et centre europeen)
44 rue de l'Amiral Mouchez, 75014 Paris, <http://cercec.ehess.fr>
18-20세기 러시아제국과 소련의 역사, 사회 문화, 정치에 관련된 자료가 단행본 22,000종, 참고자료 8,000종, 정기간행물 452 종이 있는데 1960년대부터 수집된 장서이다.
- ⑤ 러시아·소련 영상자료센터(Iconothèque russe et soviétique)
105 Bd Raspail, bureau 12, 75006 Paris, <http://iconotheque-russe.ehess.fr>
전체 자료의 90%는 총 3,000여 시간에 해당하는 동영상으로 비디오카세트로 된 자료들을 DVD 로 옮기고 있다. 나머지 10%는 비동영상 자료이다.
- ⑥ 북미 연구센터(Bibliothèque du Centre d'études nord-américaines)
105 Bd Raspail, 75006 Paris, <http://www.ehess.fr/cena>
약 1,000여종의 자료가 있다.

- ⑦ 근현대 중국연구센터(Bibliothèque du Centre d'études sur la Chine moderne et contemporaine)
Maison de l'Asie, 22 Avenue du President Wilson, 75016 Paris, <http://cecmc.ehess.fr>
20세기 중국의 역사, 정치, 경제, 사회에 관련된 자료 단행본 50,000종, 정기간행물 1,600종이 있다.
- ⑧ 동아시아 언어학 연구센터(Bibliothèque du Centre de recherches linguistiques sur l'Asie orientale)
Maison de l'Asie, 22 Avenue du President Wilson, 75016 Paris, <http://crlao.ehess.fr>
약 14,000 종 자료 가운데 80%가 중국어과 중국의 소수민족 언어에 관한 자료이다.
- ⑨ 현대 브라질 연구센터(Bibliothèque du Centre de recherches sur le Brésil contemporain)
54 Bd Raspail, salle 310, 75006 Paris, <http://www.ehess.fr/crbc>
포르투갈어, 영어, 프랑스어로 된 단행본과 정기간행물, 브라질과 프랑스의 대학과 연구소에서 출간된 자료들, 비디오와 씨디롬 등이 있다.
- ⑩ 한국연구센터(Bibliothèque du Centre de recherches sur la Corée)
Maison de l'Asie, 22 Avenue du President Wilson, 75016 Paris, <http://crc.ehess.fr>
17-21세기 한국의 역사, 인류학, 전통문화, 종교, 사회, 경제, 지리, 정치, 도시학에 관한 자료들이 7,000여 종, 정기간행물이 270여종 있다. 80%이상이 한국어 자료이다.
- ⑪ 일본 연구센터(Bibliothèque du Centre de recherches sur le Japon)
105 Bd Raspail, 75006 Paris, <http://crj.ehess.fr>
일본의 역사, 사회, 정치, 경제, 인류학, 도시학, 건축에 관한 자료가 단행본 11,600 종, 정기간행물 450종이 있고 대부분이 일본어 자료이다.
- ⑫ 오세아니아 연구와 자료 센터(마르세이유)(Centre de recherche et de documentation sur l'Océanie (Marseille))
Maison Asie Pacifique, Campus Saint-Charles, 3 Place Victor Hugo, 13003 Marseille, <http://www.pacific-credo.net>
오세아니아에 관한 자료가 5,800 종 단행본과 23종 정기간행물, 논문들이 있다.

2) 경제학 분야

- ① 쥘르당 인문사회과학 도서관(Bibliothèque Jourdan-Sciences humaines et sciences sociales)
48 Boulevard Jourdan, 75014 Paris, <http://www.paris-jourdan.ens.fr>
고등사범학교의 도서관들과 협력체를 이루는 이 도서관은 쥘르당 캠퍼스에 있는 파리 경제학교의 연구원들과 학생들이 주로 이용한다. 넓은 의미의 사회과학, 즉 경제, 사회, 인류, 정치, 법, 역사, 지리, 철학 등에 관한 자료들로 약 12,000 종의 단행본과 350종의 정기간행물이 있다.

3) 역사학 분야

- ① 알렉상드르 코이레 과학 기술 역사 연구센터(Bibliothèque du Centre Alexandre-Koyré. Histoire des sciences et des techniques)

Museum national d'histoire naturelle, Pavillon Chevreul, 57 rue Cuvier, 75231 Paris Cedex 5, <http://www.koyre.cnrs.fr>

22,000여종의 자료들이 있으며 주된 주제는 수학, 물리, 자연과학, 의학, 생물학, 생태학, 인류학, 심리학 등 과학 기술 일반에 관한 역사, 과학기관 역사, 과학과 정치 관계 역사 등이다.

② 유럽 종교 인류학 센터(Bibliothèque du Centre d'anthropologie religieuse européenne)

10 rue Monsieur-le-Prince, 75006 Paris, <http://care.ehess.fr>

5,000여종의 자료 중에는 유럽과 프랑스의 종교의식, 성지순례에 관한 특별한 자료들이 있다. 성소 형태와 사용에 대한 참고문헌자료 검색기능과 알퐁스 뒤프롱이 지도한 조사들의 주요자료들도 있다.

③ 과학·철학·역사·출판에 관한 아카이브 센터(Bibliothèque du Centre d'Archives de Philosophie, d'Histoire et d'Édition des Sciences)

29 rue d'Ulm, salle Ferdinand Buisson, 75005 Paris, <http://www.caphes.ens.fr>

인문학, 생물학, 물리학에 대한 자료가 약 21,000 종의 개인이나 기관 아카이브들이 있다.

④ 레이몽 아롱 정치연구센터(Bibliothèque du Centre de recherches politiques Raymond Aron)

105 Bd Raspail, 75006 Paris, <http://cpra.ehess.fr>

정치, 역사, 철학에 대한 자료가 약 2,800 종이 있다. 주로 참고자료와 고전에 해당하는 유명작가의 저서들이 있고 프랑스 대혁명에 대한 자료들이 집중된 것이 특징이다.

⑤ 다대학중세역사고고학 센터(Bibliothèque du Centre interuniversitaire d'histoire et d'archéologie médiévales)

18 Quai Claude Bernard, 2e étage, 69365 Lyon Cedex 07, <http://ciham.ish-lyon.cnrs.fr>

중세역사기원, 중세성 고고학, 중세 스페인과 이태리 역사에 대한 자료 6,500 종과 논문과 슬라이드 자료 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지중해 오리엔탈관에 열람된 이람·비잔틴 도서관 자료 5,500 종과 15종 정기간행물들과 함께 연합실험실에 소속되어 있다.

⑥ 루이 제르네 고대사회 비교 연구센터(Bibliothèque du Centre Louis Gernet de recherches comparées sur les sociétés anciennes)

Galerie Colbert, 2 rue Vivienne, 75002 Paris, <http://www.ehess.fr/centres/gernet/index.html>

고대 역사, 고고학에 대한 자료가 50,000종, 정기간행물 400 종이 있다. 2004년 귀스타브 글로즈 도서관과 통합되어 제르네·글로즈 도서관이 되었다.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 5세기까지의 그리스, 헬레나, 로마 역사와 고대 지중해 역사를 주로 다룬다.

⑦ 중세 서양 역사 인류학 센터(Bibliothèque du Groupe d'anthropologie historique de l'Occident médiéval)

2 rue Vivienne, 75002 Paris, <http://gahom.ehess.fr>

중세서양사 인류학센터의 조사자료와 함께 1978년부터는 중세 사제들의 설교 예제자료, 1983년부터는 중세 영상자료, 2005년부터는 중세말 게르만 지역 도시 비교역사자료 수집이 특징이다.

⑧ 중세 고고학 센터(Bibliothèque du Groupe d'archéologie médiévale)

54 Bd Raspail, bureau 723, 75006 Paris, <http://gam.ehess.fr>

부르고뉴, 이태리, 시실리아 지역의 물질 문화, 토지와 인구분포에 대한 고고학, 주거 고고학에 대한 자료 2,000 종과 연구원들이 찍은 발굴 현장 사진과 슬라이드 9,700 종이 있다.

⑨ 역사인구학 연구센터(Bibliothèque du Laboratoire de démographie historique)

54 Bd Raspail, bureau 921, 75006 Paris, <http://www.ehess.fr/centres/ldh/index.html>

약 3,500 종의 자료가 있다.

4) 사회학, 심리학, 사회심리학 분야

① 장 니코드 센터(Bibliothèque de l'Institut Jean Nicod)

Ecole Normale Supérieure, Pavillon Jardin, 29 rue d'Ulm, 75005 Paris, <http://www.institutnicod.org>

언어학(의미론과 실용론), 인지 인류학, 철학, 정치학에 대한 1,700종의 자료가 있다.

② 사회인류학 센터(Bibliothèque du Laboratoire d'anthropologie sociale)

52 rue du Cardinal Lemoine, 75005 Paris, <http://las.ehess.fr>

인류학 일반과 전문 분야 25,000종, 소논문 17,500, 박사논문 850, 정기간행물 400 종이 있다.

③ 비에이유 샤리테 사회과학 자료센터(마르세이유)(Centre de documentation en sciences sociales de la

Vieille Charité(Marseille)) 2 rue de la Charité, 13002 Marseille, <http://www.vcharite.univ-mrs.fr/cdss>

인류학, 경제학, 수학경제학, 역사, 사회학에 대한 12,000 종 저서와 365종의 정기간행물이 있다. 